

“정의란 무엇인가?”

■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말씀하면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가져올 것을 선포하셨다. 많은 이들이 예수는 은혜와 용서를 가져온 분으로만 알고 있으나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정의를 찾고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예언자 아모스도 오직 정의를 골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여다 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그가 위대한 글을 썼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만큼 정의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으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정의 실천을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정의 실천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선지자 미가는 선포했다.

정의와 인자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인자는 하나님의 조건없는 은혜와 동정을 말한다면 정의는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의 행동 배후에는 인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정의를 행해야 한다. 구약에 200번 이상 나오는 정의라는 말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다.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면을 하거나 형벌을 줄 때 종족,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벌과 사면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형벌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정의는 벌을 받거나 보호를 받거나 돌봄을 받든지 그 권리를 백성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특히 오늘날엔 탈북난민,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결혼가정의 자녀들, 장애인, 힘없는 노약자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방어자)이시라(시 68:4-5) 하나님은 자신을 힘없는 자와 동일시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들으신다. 고대사회에서는 이 같은 정의를 불명예스런 수치스러운 정의라 비웃었다. 고대 사회의 신들은 그 사회의 엘리트 즉 왕제사장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편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조롱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도와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욘 29:12-17) 하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뿐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바르고 관용과 공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너그럽게 주는 것은 자비요 동정 또는 구제지 정의는 아니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구제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선택적 활동일 뿐이다.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너그럽게 남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가르치고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다. 너그럽게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불의라는 것이다. 만만 혼자 내 떡 덩어리를 먹었고 고아와 과부를 못 본 체했고 가난한 자가 덮을 것 없을 때 못 본 체했던가. 옳은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삶은 정직 공평 그리고 관용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삶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라면 특히 아담 이후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를 너그럽게 실천해야 한다. 자력 구원 능력없는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반항해야 한다. 이 정의는 의를 옳으로 입듯이 겉옷과 모자같이 항상 내 몸에 함께 있어야 한다. 정의 실현의 기회를 멀리서 찾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찾아 도와야 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여 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사 1:17) 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

-한국장로신문 [제 1362호] 2013년 4월 13일 발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후 넷째 주일,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에는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제직회와 중직자를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 등 교회 회복의 과정이 더욱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교회당에 방역대책이 안전하게 세워져 있으므로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 1,2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새벽기도회와 각 교육부서 예배는 당분간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립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425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근 선 교 사 권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진경·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함미소(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세리,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브도, 보디소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도,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경상진·홍성임(말리우),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교육전도사 양하림 합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 살후 1:3-9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로서, 초대 교회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교회의 위대한 승리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왕성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핍박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설립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의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1. 환난은 인내와 믿음을 키운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견고히 지켜간 것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한다며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들이 겪은 환난이 그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크게 자라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렸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은 환난 중에 길이 참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볼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며 승리의 개선기를 쓰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벧전 1:7). 성도들의 고난은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2.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5절).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현재만이 아니라 장차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뜻은 상당히 큼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발생하기를 가장 두려워하여 아찌하든지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것도 왕성한 성장을 위해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의 땅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얽드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도 않고, 있어도 매우 더덕서 문턱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의 성장은 어떤 의미에서 모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모험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도는 이렇게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성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한 것입니다. 저들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데살로니가인들 사이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표시라는 말씀입니다(5절). 사도 베드로는 벧전 4:17에서 하나님의 징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길이 참되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맺는 말

환난은 인내와 믿음을 낳습니다. 그렇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으로 참 인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이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서문석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요 6:44-4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39(시 95)...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2(48)...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마 25:14-30...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주인과 계산 할 날이 온다”... 서정원 목사
 * 찬 송 Hymn328(37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롬 3:23-24 인 도 자
 찬 송 289(208) 다 함 께
 기 도 김영희 집사
 성 경 롬 5:20-2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오직 은혜” 설 교 자
 * 찬 송 210(245) 다 함 께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I부: 최미경 권사 II부: 안미경 권사
 성 경 삼하 13:23-3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만 이 년 후에”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 이번주 심방 일정

1-5, 3-4, 7-3, 11-7, 13-5다락방

☛ 결 혼

1. 임종현 군(10교구 임훈규 장로, 정경자 권사의 장남) 김양지 양(김철훈 목사, 하성숙 사모의 처녀) /

5월1일(토) 오전 11시30분 서울교회 본당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250명	322명	1,572명	314명	1,561명

☛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묻기를 시작했다. “어찌할꼬”라는 질문 속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크고 작은 문제를 포함한 절박한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보았고 울어도 보았고 힘쓰기도 하고 참아도 보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날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탄식하는 소리가 영어리져 들려진 울부짚음이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문제, 질병과 사업문제, 자신의 심성과 이웃과의 문제, 도덕과 윤리문제, 국가적 사회적 문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지 않는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더욱 좌절과 침륜에 빠지게 될 뿐 소망이 없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찌할꼬” 자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길만이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